

주말, 여기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바람 불어와 음악이 되는 섬, 제주

7~15일 9일간 곳곳서 공연
마에스트로에서 마칭까지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 첫선
세계유산 투어 만장굴 공연
콩쿠르 참가자 합주 무대도

“바람이 불어와 음악이 되는 곳, 제주에서 관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양승보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이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에 전하는 인사말의 한 대목이다.

30년 넘게 제주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이하 관악제). 이 축제를 즐길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제주아트센터, 제주문화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학생문화원, 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 등에서 밴드를 중심으로 전문 관악인과 동호인들이 빚어내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최근 봄 시즌을 따로 운영 중이지만 여름 시즌의 무게는 여전하다. 8일 개막 연주회를 채우는 미국의 BBBC(Brass Band of Battle Creek)와 테너 서영택, 소리꾼 김수인의 무대를 시작으로 눈길을 돌 공연이 잇따른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의 도움말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중국 상하이 퍼커션 앙상블을 비롯해 대만, 홍콩, 마카오, 한국 관악단이 각국 관악의 매력을 알린다. 아시아 관악인들의 예술성을 조명하기 위해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11일과 13일 오후 7시30분 해변공연장.

▷마에스트로 콘서트=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심사위원들로 꾸려진 베이스트럼본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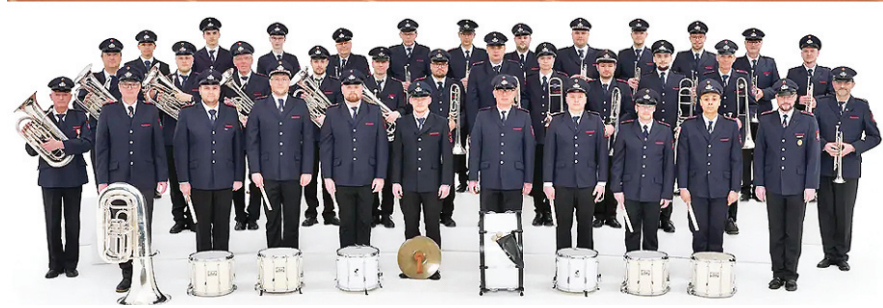


사진 위부터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포스터, 중국 상하이 퍼커션 앙상블, 타악기 주자 김성희, 캐나다 더옴티미스트어럼나이, 태국 수라삭문트리 브라스밴드, 독일 제8후사렌 부케 트럼펫코어,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 제공

상블 등이 참여한다. 제주 연주자인 김성희(퍼커션)도 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12~13일 오후 7시30분 문화회관 대극장.

▷콩쿠르 참가자 콰이어=차세대 연주자들의 교류 무대로 올해 처음 진행한다. 콩쿠르 기간 제주대 기숙사에 함께 머무는 참가자들 중에서 유포니움·튜바 부문 희망자들이 참여해 합주를 벌인다. 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음악회 직전인 14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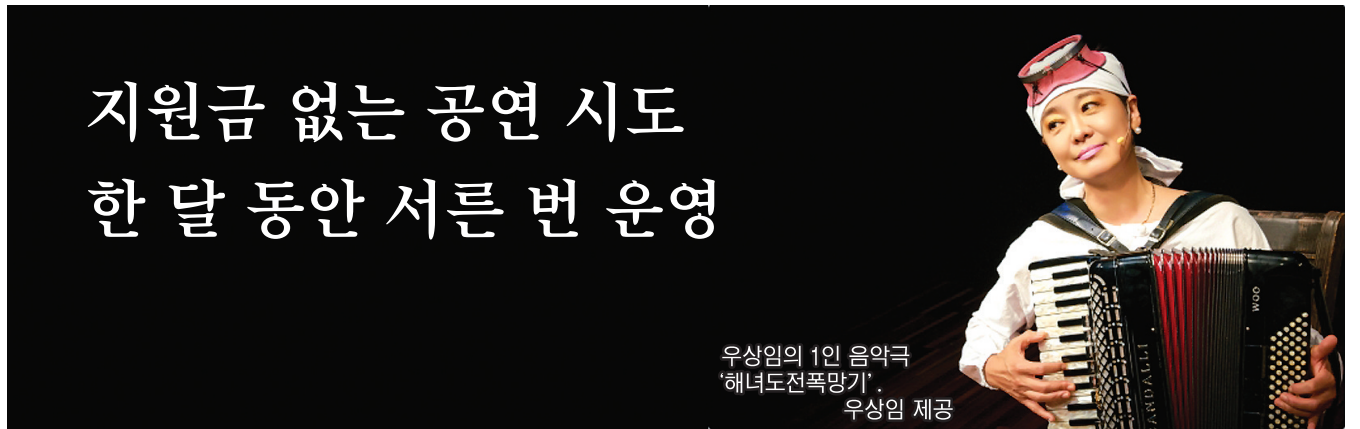
▷세계유산 투어 공연=해외 참가자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알리기 위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협업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콩쿠르 참가자와 심사위원 등 사전 신청자들이 웃산전굴, 용암굴, 만장굴을 차례로 돌아본다. 마지막 탐방 장소인 만장

굴에서는 연주회를 갖는다.

▷마칭 페스티벌=화려한 관악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출연진은 캐나다의 더옴티미스트어럼나이(옴티미스트 동문 앙상블), 독일의 제8후사렌 부케 트럼펫코어, 한국의 아인스바움(컴투스위드), 태국의 수라삭문트리 브라스밴드, 미국 미8군 군악대. 14일 오후 7시30분 해변공연장.

▷경축 음악회=광복절의 밤을 수놓는 여름 시즌 상징 프로그램. 우나이 우레초가 지휘하는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 연주, 관악제 예술감독인 엔스 린더만(캐나다)의 트럼펫 협연, 안복자 명창의 제주민요,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서귀포합창단의 ‘아! 대한민국’으로 구성했다. 15일 오후 8시 해변공연장.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피아노·아코디언 주자 우상임
8월 한 달간 애월뮤직팩토리
“지원금 위주의 공연 생태계
작품도 관객도 쌓이지 않아”

“지원 사업에 맞춰 공연을 만들면, 공연이 아니라 사업이 됩니다. 한번 무대를 올리려고 1년을 서류에 씁니다. 그렇게 만든 공연은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반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문을 여는 극장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작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객이 ‘거기 가면 늘 공연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아코디언 연주

자인 제주 예술인 우상임. 그는 적지 않은 예술인들이 애써 지원금을 받아 공연을 열지만 대개 단발성에 그치면서 작품도 관객도 쌓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지원 사업 중심으로 굴러가는 지역 예술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가 8월 한 달간 지원금 없이 벌이는 유료 공연을 기획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70석 규모 민간 소극장인 애월뮤직팩토리(임수로 63)에서 거의 매일 공연을 이어 가는 것이다. 화·목·금 오후 3시, 화·수·목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3시 등 공연 시간을 고정했다. 마지막 토요일(오후 5시30분, 7시30분)에도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8월에 펼치는 공연 횟수가 30

회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두 4개. ‘우상임의 아코디언 에세이’란 부제가 달린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선 목소리와 아코디언 하나로 한국가요 100년의 세월을 건넌다. 우상임의 1인 음악극 ‘해녀도전폭망기’는 거짓말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진짜 해녀들의 삶으로 넘어가는 작품이다. 영문 자막이 있다. ‘우상임의 살롱음악회-열한 석’은 관객과 더 가깝게 호흡하는 공연이다. ‘내 곁에, 클래식: 슈만과 브람스’는 어린이 클래식 콘서트 시리즈다. 클래식 단체 작곡가들이 올해 1월부터 매번 작곡가를 달리해 이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애월뮤직팩토리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제주 바닷길 보고 느낀다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주간
여름 행사 8~15일 8일 동안

영화와 생태관광 체험으로 제주 바다를 온전히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사)제주생태관광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갯것이영화제X여름생태관광주간’이다.

‘파도 속으로, 한 편의 영화처럼’이란 주제를 내건 올해 행사는 영화와 생태관광이 융합하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6편의 영화와 6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펼친다. 영화제명인 ‘갯것이’는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라고 했다.

갯것이영화제 개막작은 8월 8일 오후 3시30분 연동 롯데시네마에서 선보이는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수라’. 세만금 갯벌 7년을 기록한



갯것이영화제 상영작 교회영 감독의 ‘물꽃의 전설’. 제주생태관광협회 제공

영화로 상영 직후 감독과의 대화가 있다. 9일 상영작은 전설 속 해조류를 찾는 200km 추적기인 이준호 감독의 ‘꿈지풀의 속삭임’(오후 2시), 삼달리 해녀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교회영 감독의 ‘물꽃의 전설’(오후 3시50분). 두 작품도 상영 뒤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폐막작은 임완호 감독의 ‘코랄트 라이얼글: 이상한 놈들의 세상’(15일 오후 2시 연동 롯데시네마). ‘바다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코랄 트라이앵글의 생태를 담은 영화다.

생태관광주간 연계 상영도 있다. 성산 수마포(11일), 예래 조간대(12일)에서 ‘제주 바닷길 생물 탐험’을 운영한 후 수산2리 복지회관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임형묵 감독의 ‘조수응답이: 바다의 시작’을 상영한다. 14일에는 카페 핀스(대정)에서 프리다이빙 강경훈의 도전기를 그린 김동욱 감독의 ‘101’을 볼 수 있다. 상영 후 프리다이빙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 상영과 별개로 10~15일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유료)도 잇따른다. 해양시민과학조사단과 함께 하는 스쿠버 체험 ‘바다야 안녕’(보목), 제주시 수중핀수영협회가 진행하는 다이빙 체험 ‘바다에 풍덩’(이호), 하도리 이촌계의 ‘하도리 해녀 체험’(하도), 다시 바다의 패들보드 체험과 명상 ‘돌고래와 바다여행(금남)’, 제주하도카약의 투명카약 체험 ‘하도 투명한 바다’(하도) 등이다. 프로그램 안내와 예약은 행사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SAMSUNG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